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독서정원 조성

정읍시립중앙도서관에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정원이 조성됐다.

시는 생활권 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들의 치유공간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실외정원)'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립중앙도서관에 위치한 상동시민공원 부지에 총사업비 5억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노후화된 데크 바닥과 운영되지 않고 있던 수생식물 정원을 철거하고 차 한잔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외무대와 계단을 계단형 화단으로 조성해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행시와 공연을 그늘에서 편히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딱딱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실내 독서공간이 아닌 자유롭고 편안한 자연친화적인 독서공간으로 범모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즐기길 바란다"며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는 정읍천변에 인접한 만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실외정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생활권 주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실외 정원 조성으로 치유공간을 제공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개소를 조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소방서, 화학사고 대비 초동대처 교육 실시

무주소방서는 지난 20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화학사고 대비 초동대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방문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학사고 대비 초동대처 교육은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총 42 건의 화학사고 발생과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구조대와 소방서 대응 부서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대응 및 화학구조대 장비 소개 △화학물질 누출 시 대응방안 및 제독사항 안내 △화학재 등록 및 제독텐트 활용 및 현장실습 등이다.

무주소방서 119구조대장은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선정

전북대 남창우 교수, 7억여원 지원

전북대학교 남창우 교수(공과대학 유기소재섬유공학과)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우수신진연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신진연구 지원은 39세 이하 또는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임용 후 5년 이내인 이공 분야 대학 전임교원 및 국(공)립·정부 출연·민간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국가기초연구사업이다.

이에 남창우 교수는 "동적가교결합을 가진 폴리아레핀 비트리머 재료 합성 및 친환경 소재로의 응용 연구"



남창우 교수

라는 주제로 과제에 선정, 앞으로 3년간 7억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 연구는 폴리아레핀 기반 고분자를 비트리머로 변환해 보일리티 및 해양 환경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남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신진연구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소재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번 과제로 폐플라스틱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창우 교수는 그동안 지속 가능형 환경 소재에 대한 선도적 연구로 세계적인 학술지인『Chemical Engineering Journal』등에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또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그리고 LX MMA 연구 용역 사업 등에도 선정돼 지속 가능형 고분자 및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김미혜·한주희 교수, 각각 12억 4600여만원·9억 9600여만원 지원

우석대학교 김미혜(한의예과)·한주희(의학과) 교수가 2024년도 우수신진연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39세 이하 또는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등을 대상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미혜 교수는 2029년 3월 말까지 12억 4600여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클러스터 기반 한국인 특이 다양성난소증후군 오미스 데이터 연계 한의치료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김미혜 교수

또 한주희 교수는 '열과 병원체 감염의 멀티데믹에 대한 선천 면역 조절자 발굴 및 조절 기전 연구: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2028년 3월 말까지 연구비 9억 9600여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신진 연구자들이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자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민일보 장수지사, 장학금 200만원 기탁

(재)장수군예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전북도민일보 장수지사(지사장 노정철)에서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18일 전북도민일보와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테니스협회의 주관으로 개최했던 '제34회 전북도민일보 사장기 장수군 테니스대회'에서 조성된 후원금을 통해 이뤄져 의미가 더 뜻깊다.

장수지사는 장학금 기탁을 통해 장수 교육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정읍경찰서, 농번기 절도예방활동 전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에서는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지구대, 파출소가 협력하여 농번기 농산물 절도 및 빙집털이 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매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 및 지리적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활용해 치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정읍관내 범죄취약 장소를 선정하여 자율방범대와 공유, 합동 순찰 및 캠페인을 통해 가시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번기 빙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작은 청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장기간 외출시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농산물 보관창고 및 빙집에 대한 순찰 서비스를 요청하는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기도 폐쇄사고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에서는 노인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기도 폐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노인들은 뇌신경과 근육이 약해지면서 기도와 식도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하장애는 식사 중 사태가 걸리거나 기침하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게 해 알약 등을 먹다 질식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도 폐쇄가 발생하면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후, 환자의 기침을 유도해야 하며 환자가 기침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